

에콰도르 쓰나미 경보...공포의 '환태평양'



필사의 구조 17일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구마모토현 미나미야소의 강진 피해 현장에서 생존자 구조작업에 나서고 있다.



구조 기다리는 손 17일 에콰도르 페데르날레스의 주택가에서 한 생존자가 돌무더기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연합뉴스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한 일본과 에콰도르에서 14일(현지 시각)과 16일 연쇄적으로 강진이 발생해 사흘간 양국에서 최소 275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양국 정부가 본격적인 구조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여진이 이어지고 무너진 건물에 고립된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58분 에콰도르 무이스네에서 남동쪽으로 27km, 수도 키토에서 북서쪽으로 170km 떨어진 태평양 해안지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났다. 진원 깊이는 19.2km로 비교적 얕은 편으로 관측됐다.

이 지진으로 최소 77명이 숨지고, 588명이 다친 것으로 첫날 집계됐다. 17일 오전 구조작업이 본격화한 이후 사망자가 233명으로 급증했다.

일본~동남아~미주 '불의 고리'...연쇄 강진에 사망자 급증 에콰도르 인접 페루·콜롬비아 진동 감지...일본 여진 470회

이번 강진은 에콰도르에서 1979년 이후 가장 강력한 것이다.

에콰도르는 피해가 큰 과야스, 마나비, 산토도밍고, 로스리오스, 에스메랄다스, 갈라파고스 등 6개주에 대해 긴급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또한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지진 발생 직후 반경 300km 안에서 조류수위보다 0.3~1m 높은 지진해일(쓰나미)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했다. AP, AFP 등 외신에 따르면 피해는 에콰도르 제2 도시인 과야킬과 중서부의 만타, 포르토비에호 등지에 집중됐다.

지진으로 수도 키토에서 약 40초 동안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이 감지됐으며 에콰도르와 인접한 페루 북부와 콜롬비아 남부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에콰도르 지진연구소에 따르면 강진 후 135회 이상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이 중 가장 강력한 여진은 17일 새벽 2시께 최초 진원으로부터 80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규모 5.6의 지진이다.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의 일본 구마모토(熊本)현에서도 연쇄 강진이 발생했다. 14일 오후 9시 26분 구마모토 현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한 후 다음 날까지 사망자 9명이 확인됐고 16일 오전 1시 25분 규모 7.3의 강진이 재차 발생해 사망자가 급증

했다. 현지 당국은 현재까지 사망자 수를 42명으로 집계했다.

AP통신은 당국이 두 차례의 강진에 따른 실종자를 11명으로 집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부상자도 1000명 이상에서 사망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지진으로 대피소 등에 머무는 이재민이 모두 18만3882명이라고 보도했다. 규모 6.5 지진 발생 후 16일 오후까지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287차례,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62차례 발생하는 등 여진이 이어졌다. 여진 횟수는 총 470회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마모토현과 오이타현에서 약 40만 가구에 수도공급이 차단됐고 10만 가구가 정전, 가스공급 차단을 겪고 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일본, 동남아, 뉴질랜드 등 태평양 제도, 북미, 남미의 해안지역을 잇는 고리 모양의 지진·화산대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 적벽대전 주역 주유

주유(周瑜 175-210)는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어 위·오·촉 삼국시대를 연 주역이다. 자는 공근으로 안휘성 여강현 출신이다.

그는 건강하고 용모가 뛰어나다고 한다. 일찍이 손책과 친구가 되어 전쟁터를 함께 누볐다. 손책은 “나는 그대를 얻었으니 대업이 순조로울 것이오”라며 절대 신임하였다. 손책이 환한 지방을 함락시키고 교공의 두 땅을 포로로 잡았는데 언니는 본인아 동생은 주유가 아내로 맞이했다.

손책이 죽자 동생 손권이 뒤를 이었다. 그는 장소와 함께 새 정권의 양축을 담당했다. 손권에게 노숙, 제갈근, 여몽, 육손 등 실력 있는 인재를 추천했다. 조조가 원소를 격파해 중원을 차지한 관도 전투(200)에서 적벽대전(208)까지 8년간 손권을 도와 국력을 강화하고 인재를 포섭하는데 열과 성을 쏟았다. 특히 노숙을 추천한 것은

에 익숙지 못해 반드시 질병이 생길 것이라는 점이다. 유비와 손권의 연합군은 화공전을 벌여 대승을 거두었다.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 죽은 병사와 말 수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적벽대전 이후 형주는 유비와 손권이 양분했다. 다 죽어간 유비는 회생하였고 익주의 유장을 몰아내 공명이 주장한 천하삼분구상을 착각 실천해 갔다. 주유는 이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적벽대전은 어디까지나 자신과 손권의 승리였다. 그는 대축 강경론을 주장했다. 그는 손권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유비를 견제하려 하였다. 전형적인 정략결혼 전략인 셈이다.

익주에 진출한 유비군은 한중 지방의 실력자 장도의 침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다. 그는 촉나라 공격을 건의했다. “조조는 패전의 후유증으로 여력이 없다. 촉을 공격해 성공하면 한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연후에 조조

삼국시대 정립...36세에 요절

매우 현명한 처사였다. 노숙은 손권에 계 先강동 後통일의 계책을 건의했다. 먼저 강동을 차지해 기반을 구축한 후 천하의 정세를 봐가면서 통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단계적 대방론이었다.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208년 적벽대전 때문이었다. 형주의 유장을 제압한 조조는 일거에 강동지역을 제압하려 하였다. 조조에게 항복해 일거 지방정권으로 남을 것인지 과감히 맞붙어 천하의 대권을 도모할 것인지 기로에 직면했다. 장소 등 온건파는 “조조는 승냥이와 호랑이처럼 사악하고 무섭다. 그는 천자를 끼고 사방을 정벌하고 움직이면서 조정의 뜻이라고 한다. 양쪽 세력은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맞아들이는 것이다”라며 투항을 건의했다.

주유는 “조조는 비록 한나라 승상의 명에 의탁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나라 조정의 적이다”며 4가지 이유를 들어 조조를 패배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4가지 이유란 첫째, 돌북쪽 땅이 아직 평안하지 못한 점, 둘째로 수병에 기대어 싸우는 것은 북방에서는 익숙지 않은 점, 셋째로 날씨가 몹시 추워 말에게 먹일 풀이 없는 점, 넷째로 중원의 병사들이 물과 땅

와 대립중인 마초와 동맹을 맺어 양양을 공격해 함락시키면 중원 지방의 공략이 성공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촉나라 공격 준비 중 구공에서 병을 얻어 36세로 급사한다. 손권은 “나는 제왕을 보좌할만한 인재를 잃었다. 앞으로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라며 안타까워 했다.

그는 최후의 상소문에서 “삶과 죽음은 하늘에 달린 것이니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죽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이야말로 주군과 신하가 서로 합심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다”라며 노숙은 충성스럽고 사려 깊은 인물이라며 대업을 맡길 것을 건의했다.

주유는 조조의 강동 진출을 좌절시킨 인물이다. 적벽대전에서 패했다면 위나라의 천하통일은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위·오·촉의 삼국시대를 정립시킨 주역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숙을 추천해 10년간 강동지역의 평온을 유지하게 만든 것은 사심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다. 손권은 “나의 심복이 되어 공을 세우고 나와 함께 일한 자중에 공근이 있었는데 정말 잊지 못한다”며 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했다.

'분수령' 뉴욕 경선 앞두고 힐러리·트럼프, 각종 여론조사 1위



힐러리

미국 대선 경선 레이스의 주요 분수령으로 떠오른 1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주 경선을 이틀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확실한 우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는 30%포인트 안팎의 차이로 압도적인 지지율 우위를 보이고 클린턴도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어 2위 주자군이 막판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뒷심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미국 CBS 방송이 17일(현지 시각) 발표한 추적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는 뉴욕에 거주하는 공화당 유권자들 사이에서 54%의 지지율을 기록해 21%를 얻은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을 무려 33%포인트 앞섰다.

뉴욕 주 여론조사에서 줄곧 2위를 지켜온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는 19%를 얻어 3위로 밀려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이 53%를 차지해 43%를 얻은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을 10%포인트 앞섰다.

클린턴은 정책 이슈와 본선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였으나, 신뢰도 면에서는 샌더스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올해 대선에 참여할 등록 유권자 205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5.9%포인트다.

이에 앞서 NBC 뉴스와 월 스트리트 저널이 공동으로 마리스트 폴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54%로 케이시(25%)과 크루즈(16%)를 30%포인트에 육박하는 큰 폭의 격차로 압도했으며, 클린턴 역시 57%로 샌더스(40%)를 17%포인트 앞섰다.

이 조사는 10일부터 13일까지 2679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4.2%포인트다. 한편, 미국 정치전문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티क्स가 추적 집계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는 52.2%로 케이시(23.2%)를 19%포인트 앞섰다. 크루즈는 17.8%로 3위에 그쳤다. 클린턴은 53.5%로 41%를 얻은 샌더스를 상대로 12.5%포인트 격차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중개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제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 양도소득세나 이자소득세가 부담이 되시는 분
-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 062-383-4987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

NPL 물건

NO	사건번호	물건
1	광주 2015타경 11371	모델
2	광주 2015타경 17416	근린상가
3	순천 2015타경 14423	근린생활주택
4	목포 2015타경 1551	오피스텔(주거)
5	목포 2015타경 8910[1][2]	단독주택
6	순천 2014타경 9356	근린상가
7	순천 2015타경 14058	근린상가
8	순천 2015타경 15976	근린생활주택
9	목포 2015타경 10570 [1][2][3]	근린상가
10	목포 2015타경 9821	근린상가
11	목포 2015타경 12278	아파트

믿음이라는 대부 금융사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등록번호 2016-광주서구-0021 서구청 경제과 360-7162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지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

☎ 062-382-4987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79번길